

서 평

류정월 | 옛 여인을 소환하고 명명하고 꿈꾸기

- 조혜란 『옛 여인에 빠지다』, 마음산책, 2014. -

진주영 |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의 여성주체와 윤리, 그 오래된 미래를 위하여

- 이명호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성차의 문화정치』,
문학동네, 2014. -

【서 평】

옛 여인을 소환하고 명명하고 꿈꾸기

- 조혜란, 『옛 여인에 빠지다』, 마음산책, 2014. -

류정월*

서사를 읽는 것은 명명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서사의 장르를 규정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작가의 경향을 추론하는 일들이 일종의 명명인 셈이다. 『옛 여인에 빠지다』는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명명한다. “책으로 사랑을 배운 초옥”, “조선시대 아줌마 마모”, “조선판 인어공주 백능파”, “기득권층의 선한 얼굴 사정옥” 등. 이 명명들은 곧 인물의 특성이 된다.

이 책에서 명명된 인물은 열 다섯 명이다. 이 명명은 겹치지 않으며 심지어는 유사한 부분도 별로 없을 만큼 다양하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스펙트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넓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 고전소설의 세부갈래를 고려하면서 분석 대상이 되는 주인공과 보조인물을 고르게 선별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이 다양하다고 해서 다양한 명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자는 여성 인물에게 특수한 명명을 부여하기 위해 전체 고전소설을 염두에 둔다. 열녀의 전형이라 생각되는 춘향이 개성적 인물로 부각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이도령이 서울로 가게 되었을 때 춘향이 “있는 대로 자기 성질을 다 부리”는 행위들을 기술하면서,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230쪽)고 말한다. 또 『삼한습유』의 향랑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인물들을 두루두루 설득하여 급기야 상제의 최종 결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재를 얻어내는 향량의 기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러운 기술이다. 고전소설의 남녀 주인공을 다 통틀어도 이런 설득의 귀재를 만나기는 어렵다.”(293쪽)라고 한다. 그런가하면 『숙향전』의 숙향에 대해서는 “뭐 하나 탁월한 능력도 없기에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자신의 나라에서 빠져 나올 방도도 마련할 수 없는 여성”이라고 하면서 “고전소설에서 이런 보잘것없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었던 경우는 거의 없다.”(311쪽)라고 한다.

필자는 남성 주인공이나 작품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급한다. 『숙영낭자전』에서 부인 숙영과 헤어지기 힘들어 과행길을 거둬 되돌아오는 백선군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거의 무모할 정도로 보이는 남편의 사랑은 고전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선택이다.”(185쪽)라고 한다. 『포의교집』의 이생에 대해서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이 보낸 시에 화답할 재주가 없다니, 그래서 대신 이렇게 웅색한 선물을 보내다니, 이런 경우는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다.”(263쪽)라고 한다. 『변강쇠가』처럼 조선시대에 “성욕이나 애정행각 자체를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인물이나 작품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195쪽)라고도 한다. 이렇게 각 인물들은 특수하게 명명된다. 이 “거의 없는 경우” 혹은 “보기 드문 경우”라는 표지는 여성 인물(그리고 일부 남성 인물)과 그들이 등장하는 작품이 얼마나 특수하게 명명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가가 전체 고전소설의 판도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가능한 지점이다.

이 책에서 명명된 인물들은 특수할 뿐만 아니라 생동감이 있다. 조선시대 인물이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살아 숨 쉬는 인물로 느껴진다. 춘향이 열녀가 아닌 감정을 가진 여성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필자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기술하고 특징을 명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가령 『사씨남정기』의 사씨가 남편에게 첩을 들이라는, 결국은 자신과 가문을 위협에 처하게 한 제안을 하는 데 대해서 작가는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크고 작건 간에 경험을 통한 실패의 교훈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무시한” 선택을 했다고 본다. 그리고 사씨가 사람의 속내를 살피지 못했던 것에 대해 “내훈이나 경전만 읽고 소설은 안 읽은 결과”(159쪽)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그런 여인이니 현실의 다양한 인간 내면을 읽어내는 데 실패하고 교씨와 같은 여인을 첩으로 들였을 것이다. 현명하다고 하는 사씨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앞뒤 모순이 비로소 해결된다. 사씨처럼 도덕적이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여성, 주변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식이다.

인물의 명명과 평가가 주관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움베르트 에코에 따르면 ‘맥락’은 같은 텍스트 안에 존재하면서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상황’은 텍스트가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 전달되는 사건에 관여하는 여러 요소이다. 필자는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출세에 연연하지 않았던 친정아버지에게 자부심이 있었고, 자신의 도덕성을 믿는, 겸손해 보이지만 자신만만한 여인”(159쪽)이라고 하면서, 사씨가 교씨를 선택한 것에 대해 그녀의 가정 환경과 축적된 소양을 가지고 설명한다. 사정옥의 배경과 책임기라는 텍스트의 미세한 내적 정보를 놓치지 않고 맥락화한 결과이다. 텍스트 내의 여러 요소를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자는 언어적 측면도 놓치지 않는다. 가령 교씨가 “백자당(百子堂)”이라는 곳에 거처했다는 단순한 사실도 적극적으로 맥락화된다. “백자당”은 자식을 많이 낳는 다복함을 기원하는 이름이다. 자식을 낳는 도구와 기능으로 치환된 여성이 거처할 법한 곳이다. 그곳에서 교채란이 생각하고 느꼈을 것에 대해 필자는 상술한다. 또 『구운몽』의 “백능파”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능파(凌波)”, 즉 물을 건너다니는 사전적 뜻과, 가볍고 우아한 미인의 걸음걸이를 가리키는 함축적 의미를 이용한다. 그 결과 “마치 중국 무술영화의 한 장면처럼 호수 위를 매끄럽게 스쳐 지나가는 여성 무협”(21쪽)을 상상하기도 한다. 또한 『포의 교집』에서 다른 남성 등장인물들이 초옥에 대해 사용하는 단어들이 ‘채찍으로 몬다’, ‘삼킨다’, ‘찢는다’와 같은 표현들이라고 하면서, 힘을 이용하여 상대를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욕망이 내포된 단어들이라고 말한다. 이

런 세부적 요소들은 인물의 개성이나 심리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맥락화된다.

뿐만 아니라 각 인물들은 문화적 ‘상황’을 통해 설명되기도 한다. 가령 『사씨남정기』가 창작되고 읽힌 당대, 여성의 유교적 이념화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변강쇠가』에서 옹녀의 말(“송장 치우기 지긋지긋하다”)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것이면서도 공감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 장례 문화를 염두에 두며 설명하기도 한다. 필자는 등장인물 뿐 아니라 작가의 고민해 대해서도 생각한다. “사랑 얘기는 해야겠고, 가문 좋고 선남선녀가 만나야 더 흥미로울 것 같고, 지체 높은 규정처자 주인공이 대놓고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작가들이 써야 했을 편법”(248쪽)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숙향전』의 작가가 천상계를 개입시키지 않고는 “숙향이 현실에서 겪는 고난을 무사히 치러내고 남자 주인공을 만나 행복한 결말에 도달하게 만들 뾰족한 방도”(306쪽)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 작가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작가들이 주인공들과 어떤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추론하기도 한다. 필자는 등장인물이 가지는 특성을 문화적 상황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혹은 특수한 것으로 읽어내기 위해 그녀들과 그녀들을 만들어낸 작가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들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읽어내고, 감정을 이입하고 소통하는 듯하다.

인물의 특수성과 가치를 동시에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방식 가운데에는 다양한 대조와 비교가 있다. 이는 장르, 시대, 문화를 초월한 텍스트끼리 이루어지기도 한다. 작가는 서두에서 “생각의 흐름은 이런저런 문학작품들은 물론, 내가 좋아하는 TV드라마나 영화로도 넘나든다.”고 말한다. 조선판 인어공주로 명명된 『구운몽』의 백능파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와 비교된다. 필자는 백능파와 인어공주가 신분이 높은 인간 남자를 사랑하기에 고난을 겪는 여성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백능파는 인어공주처럼 무력하지 않다. 그녀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채로 인간에게 받아들여진다. 또 백능파와 양

소유의 관계는 인어공주와 왕자의 관계 보다는 비교적 동등해 보인다. 이런 대조를 통해 백능과는 인어공주보다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여성으로 자리매김 된다. 또한 필자는 『변강쇠가』의 용녀와 ‘향랑고사’의 향랑을 비교하기도 한다. 허구적 인물과 실재했던 인물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하층민 여성으로 팍팍한 현실을 견디게 되는데, 용녀는 결국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하고 향랑은 정절과 생존의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용녀는 향랑과는 달리 삶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인물로, 자신이 가진 밀천이라고는 결국 성적 매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204쪽)는 것이다. 이런 비교는 하층민 여성의 고단한 삶과 절박한 선택을 부각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용녀를 단순한 성적 아이콘(“여자 변강쇠”)으로 보는 것이 그녀에게 왜 부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그 외 다양한 비교가 등장한다. 같은 텍스트의 두 여인을 비교하기도 하고(『옥루몽』의 강남홍과 벽성선), 유사한 시기 향유된 소설의 서로 다른 인물을 비교하기도 하고(19세기 서울의 사랑을 보여주는 『절화기담』의 순매와 『포의 교집』의 초옥), 시대나 장르를 넘나들며 비교하기도 한다(『삼한습유』의 향랑과 영화 <하녀>의 은이, 『홍계월전』과 버지니아울프의 『올란도』). 이러한 비교는 “사람 사는 속내는 그렇게 몇 백 년 시간을 납작하게 만든다. 켜켜이 들춰보게 한다.” 그렇게 들춰본 결과 이 여성들은 우리 앞에 특수성과 보편성을 가진, 전형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인물로, 장단점을 가진 생동하는 여성들로 서게 된다.

오랜 시간 고전소설 안에서 잠자는 여성들을 이렇게 현재 살아있는 인물로 소환함으로써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필자의 또 다른 작품 “옛 소설에 빠지다”처럼 이 책 역시 여성 인물을 통해 고전소설의 매력을 발견하게 한다. ‘늑혼’과 ‘앵혈’ 같은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 ‘재자가인’의 등장과 같은 장르적 관습, ‘영웅 소설’, ‘군담소설’, ‘애정소설’의 장르적 특성 등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쉬운 설명도 고전소설의 매력에 한 걸음 다가서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 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텍스트의 다른

구성 요소나 남성 인물이 아니라,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특히나 조선시대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약자였다.

3부 “가부장제에서 살아남는 한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사씨남정기』의 교채란, 『사씨남정기』의 사정옥, 『숙영낭자전』의 숙영이 다루어진다. 그런데 물질적인 욕망을 전면화함으로써 가부장제에 도전했던 교채란은 죽어서 들판에서 버려지고 까막까치의 밥이 된다. 고난 끝에 받아들여진 인물은 사정옥과 숙영이다. 그러니 이 장 제목이 “가부장제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없다. 모범생으로 “기득권층의 선한 언굴”을 가졌던 사정옥은 엎드려 기다린 끝에 받아들여진다. 숙영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다. 천제가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여 환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니 가부장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면 한 가지, 환상적인 것까지 고려하면 두 가지가 되니 이 제목, “가부장제에서 살아남는 한두 가지 방법”은 참으로 적절하다. 그 현실적인 한 가지 방법, 사정옥의 방법은 성공은 했으나 고민스러운 방법이다. 엎드려 참는 것 외에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여성이 엎드려 참아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란 도대체 얼마나 억압적인가? 이렇게 필자는 고전소설의 여성들을 통해 가부장제에서 벗어난 대안을 꿈꾸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면서 결국 그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한다.

저자는 억압의 중층구조 속에서 허부를 차지하는 존재, 『포의교집』의 초옥과 같은 인물의 시도를 특히 유심히 보기도 한다. 그 결과 초옥이 이생과의 사랑을 꿈꾸게 된 것에 대해 “아름답고 총명하고 지적 능력이 뛰어났던 초옥이 앞으로 열릴 세계로 한발 더 가까이”(259쪽) 나아가지 못하고 중세 회귀적 경향을 가졌던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긴다. 또 적자와 서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옥루몽』에서 강남홍의 아들이 적장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충분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음에 대해, “분명 남영로의 새로운 꿈꾸기가 엿보이는데, 그 대안적 모

색은 아마 이 정도가 마지노선인 듯하다.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현대 독자가 조선시대 작가의 의도보다 앞서 나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탓일까”(115)라고 자문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비인간이 인간과 관계 맺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동화 인어공주와 조선판 인어공주 백능과에 대해 비교한 끝에 이렇게 묻는다. “인간을 선망하지 않는, 인간 세상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인어공주나 용녀 이야기는 어디 없나?”(6쪽) 또 “금방울이 인간이 된 후 뭐 그리 더 좋은 것이 있었을까?”(341쪽) 라며 묻기도 한다. 무한 에너지와 자기 긍정을 가진 독립적이었던 금방울이, 여성이 되면서 아름다운 둘째 부인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과 대등할 수 없으니,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는 조화로울 수 없다. 여성 인물의 삶을 통해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것은 페미니즘 연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시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과 비인간의 대안적 관계 맺기에 대한 시각, 일종의 생태학적 시각은 이 책에 독특한 것이 아닐까 한다.

소설은 인간 내면의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는 장르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경우는 조금 다를 법도 하다. 권선징악을 통해 교훈을 전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고전소설은 따라 해야 할 선을 간직한 것이 되고, 독서 과정은 선을 파악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 된다. 이 책의 미덕은 여성 인물을 전범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춘향의 절개를, 사정옥의 인내를, 숙향의 천명에의 순응을 부각시킬 만도 하지만 필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 이 책의 독자는 인물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다. 신분과 젠더와 인간 종(種)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위한 방안을 타진한다. 이는 효과적으로 수행되는데, 필자가 소설의 여성 인물을 현실로 불러내어 응시하고 소통한 결과 그녀들이 우리 옆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물로 명명되었기 때문이다.